환경영향평가 Vol. 33, No. 6(2024), pp.365-374 J. Environ. Impact Assess. 33(6): 365-374(2024) ISSN 1225-7184
https://doi.org/10.14249/eia.2024.33.6.365

Research Paper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 매개효과 –

이달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Effect of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on Residence Duration

– Mediating Effect of Daily Life Satisfaction and Crime Fear –

Dalbyul Lee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요약: 거주기간이 주거 안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요 전제이다. 이 연구는 주민이 현재 거주하는 근린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지역사회 요인 중 하나인 근린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이 거주하는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거주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가구원 13,836명) 자료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위계적 선형회귀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이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해 인지할수록 해당 근린에서의 거주기간은 단축되었다. 이러한 무질서 인지는 일상생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켰다. 결국 거주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근린 환경 쾌적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논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근린환경 무질서, 거주기간, 일상생활 만족, 범죄 두려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Abstract: Residence duration is considered as a key premise for residential safety and community integ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s a community-level measure to keep residential living. It examines that residents'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can affect their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and fear of crime, ultimately resulting in a shortening of the residential duration. Mediation effect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s are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2020 National Living Safety Survey(13,836 households). As a results of the analyse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the shorter the residence duration. This perception of disorder has a negative impact on daily life satisfaction and increased crime fear. Ultimately, this resulted in a shortening of the residence period. The results raise the nee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develop a continuous discussion system with local communities to maintain environmental comfort at the community level.

Keywords: Neighborhood Disorder, Residence Duration, Daily Life Satisfaction, Crime Fear, National Living Safety Survey

First & Corresponding Author: Dalbyul Lee, Tel:+82-51-890-4293, Email: moon@deu.ac.kr, ORCID: 0000-0002-5249-4378

Received: 1 November, 2024. Revised: 11 November, 2024. Accepted: 13 November, 2024.

www.kci.go.kr

I. 서론

개인이 특정 지역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 또는 그 자신을 그 지역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거주의식은 태어나서 자라난 곳에 대한 애착심이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의 이해관계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형성된다(Kim et al. 2017). 이는 지역사회에 대해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과 관련 있으며 거주기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거주기간은 개인의 주거 안정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지와 주거환경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76; Rhee & Chang 1991). 특히 거주자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근린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지할수록 해당 근린에서 오래 거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Seo et al., 2010; Lee et al., 2018).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무질서한 근린환경이 거주자들의 심리, 특히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그 근린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저하시켰을 것으로 이해된다(Skogan 1986; Sirgy & Cornwell 2001; Jung 2017; Kang & Kim 2018; Park & Hwang 2023). 그러나 근린환경의 무질서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이러한 전반적인 매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린환경과 거주기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 인지가 거주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무질서한 근린환경으로 인한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 근린환경이 거주기간에 미치는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거주기간의 영향요인으로서의 근린환경

거주기간은 주거 안전성, 지역사회 통합,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개인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Lee 2008),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 애착과 주민참여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wn & Perkins 1992; Kim & Yoo 2012).

주거환경에 있어 주택을 포함하는 주거만족도 뿐 아니라 주택의 외부환경은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Lee 2008; Choi & Jun 2017). 특히 선행연구는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쓰레기, 낙서, 건물의 파손, 공공시설 관리 부재 등의 물리적 무질서와 범죄, 사회적 일탈 행위 등의 사회적 무질서를 포함하는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주목하였다(Skogan 1990; Taylor 1996; Sampson & Raudenbush 1999).

이들 연구들은 물리적 및 사회적 무질서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와 주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주민들이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을 가지는 것은 근린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통하여 거주의향과 근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Wolpert 1965; Butler et al. 1969). Seo et al.(2010)는 미국 중부 오하이오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구성 및 근린특성을 포함하는 주거환경(접근성, 서비스 취약성·혼잡성, 사회적·물리적 근린환경 등)이 주택의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린 내 청소 등 공공서비스가 개선될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기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Lee et al.(2018)는 서울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지속거주의향에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다. 지속거주의향을 “자신이 거주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고, 주거환경만족도를 주택의 외부환경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주택 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주거환경 범위를 입지편리성, 쾌적성, 청결성·안전성(동네 청소상태, 소음정도, 자연재해, 범죄, 사생활보호, 시

www.kci.go.kr

설안전), 경제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결성 및 안전성은 지속거주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들이 무질서한 근린환경을 인지하는 경우 주거 만족도가 낮아지며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보다는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을 갖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2.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의 매개효과

근린환경의 무질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 결국 거주지에 계속 거주할 의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근린환경 무질서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으로 나누어 논의된다.

먼저, 무질서한 근린 환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Ross & Mirowsky 1999). 이는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약화되며,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상생활 만족도를 더욱 낮출 수 있다(Jung 2017; Kang & Kim 2018).

일상생활 만족도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얼마나 거주지 선택, 주거 만족도, 이사 또는 장기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Lu 1999; Sirgy & Cornwell 2001). 이는 개인이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할 경우 현재의 생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근린환경은 범죄 두려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사회적 통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범죄 두려움이 높아지고, 이는 거주자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Pain 2000). 브로큰 윈도우(Borken window) 이론에 따르면 무질서한 환경은 범죄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다(Wilson & Kelling 1982). 동네의 무질서한 환경이 방치될 경우 주민들은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질서한 환경 자체가 범죄율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Hwang 2015; Park & Hwang 2023).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거주 기간과 주거 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해당 지역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Skogan 1986). 범죄율이 높다고 인식되는 지역일수록 거주자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져 더 자주 이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Covington & Taylor 1991), 결국 거주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III. 연구 가설 및 설계

1. 연구 가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근린환경의 무질서 인지는 거주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가설 2: 근린환경의 무질서 인지는 일상생활 만족을 저하시켜 거주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가설 3: 근린환경의 무질서 인지는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켜 거주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Figure 1은 이 연구의 가설을 개념화한 것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도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근린환경의 무질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개효과 위계적 선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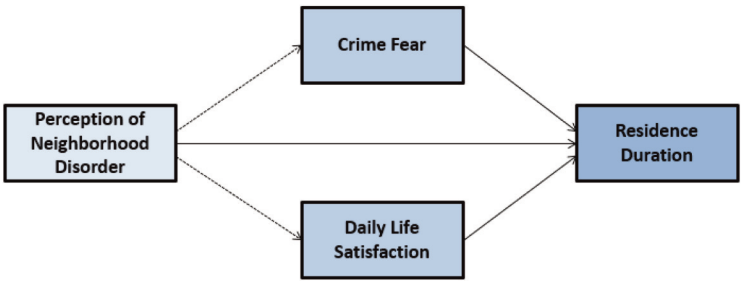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and Analytical Model on the Residence Duration of Perception of Neighbhood Disorder

형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가 매개변수(일상생활 만족,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q. (1)은 일상생활 만족을, Eq. (2)는 범죄 두려움을 매개변수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Satisfaction*은 일상생활 만족, *CrimeFear*은 범죄 두려움, *Disorder*는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 *C*는 통제변수, ε는 에러항을 나타낸다.

$$Satisfaction = \beta_{10} + \beta_{11}\, Disorder + \beta_{12}\, C + \varepsilon \quad (1)$$

$$CrimeFear = \beta_{20} + \beta_{21}\, Disorder + \beta_{12}\, C + \varepsilon \quad (2)$$

다음으로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식 (3)에서 근린환경 무질서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수식 (4)에서 두 매개변수를 통해 거주기간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Residence = \beta_{30} + \beta_{31}\, Disorder + \beta_{32}\, C + \varepsilon \quad (3)$$

$$Residence = \beta_{40} + \beta_{41}\, Disorder + \beta_{42}\, Satisfaction + \beta_{43} + \beta_{11}\, CrimeFear + \beta_{42}\, C + \varepsilon \quad (4)$$

Baron & Kenny 검증방법에 따라 Eq. (1)의 β_{11}, Eq. (3)의 β_{31}, Eq. (4)의 β_{4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β_{41}이 β_{31} 보다 작으면 근린환경에 대한 무질서 인지가 일상생활 만족을 매개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q. (2)의 β_{21}, Eq. (3)의 β_{31}, Eq. (4)의 β_{4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β_{41}이 β_{31}보다 작으면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는 매개변수 CrimeFear, 즉 범죄 두려움을 통해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Eq. (4)의 β_{41}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면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거주기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두 매개변수는 완전 매개하는 것이며, 유의미하면 매개변수와 무질서 인지 모두 거주기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매개변수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매개효과 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변수를 거치는 간접효과를 더한 값을 의미한다. 즉,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β_{31})과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을 매개로 하는 각각의 간접효과($\beta_{11}\times\beta_{42}$, $\beta_{21}\times\beta_{43}$)의 합, β_{31} + ($\beta_{11}\times\beta_{42}$, $\beta_{21}\times\beta_{43}$)이다(Lee, 2019).

3. 변수 설정

인지된 근린환경의 무질서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1994년부터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범죄 관련 조사이다. 2010년까지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2012년부터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승인 통계명)로 변경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구성, 사회경제적 배경, 동네와 이웃과의 관계, 범죄 피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2020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자료로 2021년 8월 중순부터 약 3개월 간 실시하여 6,708 가구의 가구원 13, 836명에 대해 2020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Park et al. 2020). 이 연구는 14세 이상 가구원을 분석

www.kci.go.kr

단위로 하여 가구원의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거주기간을 개월 수로 나타낸 것이다. 독립변수인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는 '작년(2020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하는 것으로, 물리적 무질서 3개 문항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과 사회적 무질서 3개 문항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6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값을 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는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이다. 일상생활 만족도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문항 중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리커트 11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범죄 두려움은 선행연구와 같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등 3개의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값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값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값을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Clarke et al. 1984; Decoster et al. 2005; Yi & Lee 2012; Jeong & Kim 2021) 고찰을 통해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사회경제·주택 특성 요인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은 소득 및 교육수준, 주택 특성은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 등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 노인일수록 거주기간이 길고,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으며, 단독주택일수록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Table 1은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 결과를 나타낸다. 2020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참여한 가구원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평균 170개월(14년 2개월) 거주하였다. 근린환경

Table 1. Results of Descriptive Satistics Analysis of Variables (N=13,836)

Variables	Questions	Min	Max	Mean	St.D.
<Dependent Variable>					
Residence Duration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current neighborhood? (total months)	1	1,094	170	175
<Independent Variable>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There was trash thrown around haphazardly and it was messy.	1	5	2.05	0.87
	There were many dark and secluded places	1	5	1.98	0.93
	There were many abandoned cars and empty buildings nearby.	1	5	1.81	0.83
	There were many people who did not follow baisc rules (jaywalking, illegal parking, etc.).	1	5	2.10	0.94
	There were many delinquent youths walking around in groups.	1	5	1.80	0.80
	I could often see people arguing or fighting loudly.	1	5	1.80	0.75
<Mediating Variables>					
Daily Life Satisfaction**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overall daily life?	1	11	7.41	1.26
Crime Fear*	I'm afraid when i's home alone at night.	1	5	2.02	0.93
	I'm afraid when I walk down the alleys of my neighborhood alone at night.	1	5	2.23	1.02
	I'm afraid that I myself will be a victim of crime.	1	5	2.06	1.02

www.kci.go.kr

Table 1. Continued

Variables	Questions	Min	Max	Mean	St.D.
<Control Variables>					
Gender	① Man, ② Woman	1	2	1.52	0.50
Age	Age range: 10 years old (① Teens, ② 20s, ~ ⑥ 60s, ⑦ 70s or older)	1	7	4.51	1.69
Incom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last year (① Lee than \ 1 million, ~ ⑩ More than \ 10 million)	1	9	4.50	1.92
Education	Degree o formal education (① Did not receive it, ② Elementary school, ~ ⑦ Graduatie school or higer)	1	7	4.38	1.33
Homeowner	Dummy of Ownership of current home	0	1	0.78	0.42
House+Business	Dummy for the presence of household members who run a business in the houses they currently live in	0	1	0.04	0.20
APT	Dummy of APT	0	1	0.54	0.50
Detached House	Dummy of detached house	0	1	0.25	0.43

* Likert 5-point scale (① Strongly disagree to ⑤ Strongly agree)
** Likert 11-point scale (① Not at all satisfied, ~ ⑥ Average, ~ ⑪ Very satisfied)
Sour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0), KOSIS (2020)

무질서에 대한 인지 중 물리적 환경에서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와 사회적 환경에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6개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근린환경에서 무질서를 인지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1.80~2.10). 일상생활 만족도는 평균 7.41로 보통 수준(6)보다는 높았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3개 문항 평균이 2.02~2.23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었다.

실태조사 대상 중 52.40%(7,255명)는 여성, 47.60%(6,581명)는 남성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22.50%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17.80%, 17.50%로 뒤를 이었다. 10대가 4.30%로 가장 적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소득은 300~400만원이 가장 많았고 (19.50%), 400~500만원(19.20%)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정규교육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Question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There was trash thrown around haphazardly and it was messy.	.783	.849
	There were many dark and secluded places	.758	
	There were many abandoned cars and empty buildings nearby.	.757	
	There were many people who did not follow baisc rules (jaywalking, illegal parking, etc.).	.755	
	There were many delinquent youths walking around in groups.	.740	
	I could often see people arguing or fighting loudly.	.709	
Crime Fear	I'm afraid when i's home alone at night.	.899	.729
	I'm afraid when I walk down the alleys of my neighborhood alone at night.	.877	
	I'm afraid that I myself will be a victim of crime.	.821	
KMO (Kaiser-Meyer-Olkin)		0.844	
Bartlett Verification	Chi-Squre	56,416	
	df (p)	36 (<0.01)	

www.kci.go.kr

Table 3.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of Daily Life Satisfaction, Crime Fear, and Residence Duration

Variables	Daily Life Satisfaction	Crime Fear	Residence Dur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ntant	6.074***	-0.862***	0.155***	0.018***
Percept. Neighbor. Disoder	-0.143***	0.378***	-0.024***	-0.002*
Daily Life Satisfaction				0.015**
Crime Fear				-0.052***
Gender	0.099***	0.658***	-0.044**	-0.011
Age	-0.038***	-0.037***	0.055***	0.054***
Income	0.104***	0.009*	-0.045***	-0.047***
Education	0.143***	0.000	-0.158***	-0.160***
Homeowner	0.196***	0.032*	0.599***	0.598***
House+Business	0.115*	0.169***	-0.148***	-0.141***
APT	0.116***	-0.017	-0.137***	-0.139***
Detached House	0.156***	-0.139***	0.688***	0.679***
R^2	0.155	0.255	0.389	0.392
F	200.4***	526.2***	979.4***	809.2***

* p<.1, ** p<.01, *** p<.001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6.50%,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5.80%로 나타났다. 자가인 경우는 77.50%, 거주하는 집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4.20%였다. 주택유형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인 경우는 각각 53.90%, 25.00%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량(0.7 이상)과 크론바흐 알파값(0.7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와 범죄 두려움을 측정한 설문문항이 타당하고 신뢰도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물론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의 거주기간에의 구조적 효과를 살피기 위해 세 단계의 위계선형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모형 4)는 일상생활 만족도와 범죄 두려움은 각각 거주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가구원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0.015), 반대로 범죄 두려움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짧다는 (-0.052)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는 거주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린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지할수록 해당 근린에 거주하는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자가일수록 거주기간은 길었다. 성별은 Model 3에서는 여성일수록 거주기간이 길었으나 모형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과 Model 2의 결과를 살펴보면,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는 일상생활 만족도에는 부(-)의 영향, 범죄 두려움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물질적·사회적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지할수록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은 감소하고 (-0.143) 범죄 두려움은 증가한다는 (0.378)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인지는 일상생활 만족을 저하시키고 범죄 두려움을 악화시켜 결국 거주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인지된 무질서는 또한 거주기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근린환경 무질서 인지가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상생활 만족과 범죄 두려움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ww.kci.go.kr

V. 결론

최근 우리 사회는 고용 변화, 주택 가격 상승, 교육에의 투자 등으로 주거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거 안전성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인지하면서 거주기간을 주거 안전과 지역사회 통합의 주요 전제로 간주하고, 주민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근린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린환경의 무질서가 주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결국 거주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설과 같이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거주기간은 단축되었다. 이러한 무질서 인지는 일상생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켰다. 결국 거주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적 측면에서 근린환경이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매커니즘을 설명해준다.

인구 감소로 빈 집 등 방치되는 공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러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린환경의 물리적 무질서의 증가는 사회적 무질서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계속 거주 의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근린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근린 수의 증가가 공간적 확장으로 이어지면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 근린단위 환경 쾌적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근린단위 환경 및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논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환경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연구에서 채택한 자료 자체의 미흡함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2020년 자료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점이다. 이로 인해 이 연구 결과를 코로나19 전후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가 범죄와 관련한 민감한 자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는 응답자의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정보를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 결과의 지역적 차이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할 수 없었다.

References

Brown BB, Perkins DD. 1992. Disruptions in Place Attachment. Human Behavior & Environment, 12: 279-304.

Butler W, Chapin W, Hemmes F, Keaser G, Stegman E, Weiss S. 1969. Moving Behavior and Residential Choice: A National Survey, Washington, D.C.: Highway Research Board.

Campbell A, Converse PE,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Choi HY, Jun HJ.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Mobility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30(1): 163-180. [Korean Literature]

Clarke W, Deurloo M, Dieleman F. 1984. Housing Consump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4: 29-43.

Covington J, Taylor R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Implications of between- and within-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Sociological Quarterly, 32(2): 231-249.

Decoster A, Capeau B, De Swerdt K. 2005. Residential Mobility in Belgium: A Duration Analysis, Leuven: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Hwang EG. 2015. The effect of community macro environment, disorder, victimization, and

www.kci.go.kr

community control on fear of crime: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efficacy.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4(1): 271-294. [Korean Literature]

Jeong YA, Kim YJ. 2021. Places We Want to Stay - How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Finaces Affect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33(3): 55-76. [Korean Literature]

Jung SR. 2017.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in the Rela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and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mplications for Christian Conseling, Theology and Praxis. [Korean Literature]

Kang H, Kim HH. 2018.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Network on Safety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Regional Disorder.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54: 77-99. [Korean Literature]

Kim SY, Oh CO, Moon KJ.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in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3): 35-43. [Korean Literature]

Kim YJ, Yoo BS. 2012. Effec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sense of community on residential mobility decision of urban residents: Focus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7): 219-226. [Korean Literatur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0. National Living Safety Survey. https://mdis.kostat.go.kr. [Korean Literature]

KOSIS. 2020. https://kosis.kr/index/index.do. [Korean Literature]

Lee IH. 2019. EasyFlow Regression Analysis. Seoul: Hannarae. [Korean Literature]

Lee KH. 2008. Effects of Residens's Social Relationship on Housing Mobility Decision - A Case Study of 12 Areas in Seoul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3(5): 23-33. [Korean Literature]

Lee KY, Jeong MG, Jung YE. 201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Continual Residence Intention - Focusing on Comparison among Five Resions in Seoul-.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iminstration, 27(2): 179-210. [Korean Literature]

Lu, M. 1999.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rdered Logit vs. Regression Models. Growth and Change, 30(2): 624-287. [Korean Literature]

Pain R. 2000. Place, Social Relations and the Fear of Crime: A Review.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3): 365-387.

Park HM, Choi SH, Kim NH, Lee SH, Jo JS. 2020. National Crime Damage Survey 2020 Analysis Repor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orean Literature]

Park JH, Hwang EG. 2023. A Test of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Disor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Vulnerability Perceptions and Fear of Crime. The Korean Associa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5(2): 41-66. [Korean Literature]

Rhee KH, Chang OJ. 1991. A Study on the Housing S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or with Spouse - A Comparis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2): 225-240. [Korean Literature]

Ross CE and Mirowsky J. 1999. Disorder and Deca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Urban Affair Review, 34(3): 412-432.

Sampson RJ, Raudenbush SW.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3): 603-651.

Seo WS, Kim SY, Yang KS. 2010. Exploring Decision

www.kci.go.kr

Factors of Residential Environments on Housing Duration: A Case Study of Mid-Ohio, US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3(2): 3-22. [Korean Literature]

Sirgy MJ, Cornwell T. 2001. The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Neighborhood Satisfaction, and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Journal of Urban Affairs, 23(3): 231-256.

Skogan WG, 1986. Fear of Crime and Neighborhood change. Crime and Justice, 8: 203-229.

Taylor RB. 1996. Neighborhood Responses to Disorder and Local Attachments: The Systemic Model of Attachment, Social Disorganization, ad Neighborhood Use Value. Sociological Forum, 11(1): 41-74.

Wilson JQ, Kelling GL. 1982.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249(3): 29-38.

Wolpert J. 1965. Behavioral Aspects of the Decision to Migrate. Paper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15: 159-169.

Yi CH, Lee SI. 2012. Analyzing the Factors on Residential Mobility according to the Household Member's Change: In Consideration of Residential Duration of the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4): 205-217. [Korean Literature]

www.kci.go.kr